

## 일반논문

류정월 |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試論)-

이소희 |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주의 창조적 자아의 발전과정 연구

-80년대 사회운동 및 사회문화적 담론과의 영향을 중심으로-

진선영 | 추문의 데마고기(Demagogy)화, 수사학에서 정치학으로

-송계월의 소문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김지영 |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의 연재소설 연구

-연애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송인화 | 196, 70년대 감성-규율-프레임과 젠더

-정연희 자전소설에 나타난 불륜 담론 연구-

김윤정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남편’의 표상과 젠더 정치성 연구

우미영 |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재원 | 1990년대 한국 여성비평가 연구

김지미 | 고백체 소설의 영화 각색 방식 연구

-손소희의 『그날의 햇빛은』과 정진우의 『초연』을 중심으로-

허윤진 | 거울들—동화 『눈의 여왕』과 영화 『Blind』의 주체학적 연구



#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試論)-

류정월\*

## 「차례」

1. 서론
2. 「세경본풀이」의 통합적 구조-이중적 구조
3. 「세경본풀이」의 계열적 구조-관계의 불안정성
  - 3.1. 문도령과 자청비-소통의 일방성
  - 3.2. 정수남과 자청비-조건적 상호성
4.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인위성과 고단함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세경본풀이」가 제주도의 신화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농업관(농경관, 농업의식, 농업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세경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자청비가 가진 일반 농업신적 면모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에는 자청비 외 두 명의 신이 더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지엽적 사실이나 모티프보다는 구조에 초점을 두면서, 개별 사건을 전체 속에 위치시키는 통합적 구조와, 인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는 계열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통합적 구조의 특징은 문도령과 자청비의 만남-혼인의 서사에 정수남의 죽음-재생의 서사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도령과 자청비의 만남, 반복되는 이별-재회, 혼인의 서사 즉 결연담은 탄생-좌

\* 인천대 국문학과 강사

정의 중심 서사이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는 문도경과 자청비의 이별-재회의 중심 서사이다. 따라서 『세경본풀이』의 통합적 구조는 문도령-자청비 서사와 자청비-정수남의 서사로 이루어진 이중적 구조로 볼 수 있다.

계열적 구조에서는 이들 관계가 상징하는 바를 탐구하였다. 이들 관계는 모두 불안정성에 기초하는데, 문도령-자청비 관계는 소통의 일방성으로, 자청비-정수남의 관계는 조건적 상호성으로 인해 그러하다. 나아가 본고는 그러한 관계들이 제주도의 농업 현실에서 환기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세경본풀이』는 제주도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담론이기도 하다. 기질적 척박함, 기후조건의 방해, 목축의 번성 가능성 등 현실적 의미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세경본풀이』에서 주체들의 분리와 이들 관계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하늘의 일방성과 야생의 전복 가능성 등 신들 관계의 불안정성은 제주도에서 농사에 대한 문제적 상황을 환기시킨다. 이 상황에서는 일방성을 상호성으로, 야생의 전복가능성을 복속가능성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하늘과 땅, 목축과 농업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들려는 인간의 노력이기도 하다. 『세경본풀이』를 통해 구성되는 제주도 농업관에는 농업 환경의 “인위성(人爲性)” 혹은 “작위성(作爲性)”과 그로 인한 농사의 “고단함”이 나타난다.

핵심어: 세경본풀이, 농업관, 특수성, 제주도 신화, 통합적 구조, 계열적 구조, 이중적 구조, 관계의 불안정성, 인위성

## 1. 서론

신화에는 기억, 전통, 관습과 같은 문화 전반이 표현되어 있다. 신화는 하나의 세계상이다. 신화는 낮과 밤의 변화, 사계의 흐름에 따르는 초목의 생장과 소멸, 인간의 탄생과 죽음, 천둥과 번개 등과 같은 자연의 힘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신화의 의미는 상황과 장소,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는다.<sup>1)</sup> 신화가 담고 있는 시간, 삶, 자연 현상 등 문

화 전반에 대한 사유는 본질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에는 보편적 요소와 특수한 요소가 섞이게 된다. 이는 제주도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2)</sup>

본고에서는 『세경본풀이』가 제주도의 신화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농업관(농경관, 농업의식, 농업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경본풀이』는 농경기원신화이다. 세경신인 자청비는 하늘에서 오곡의 씨를 가져온다. 그러나 세경신이 오곡의 씨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았다.<sup>3)</sup> 『세경본풀이』에 농경과 관련된 “기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구체적 행위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세경신의 좌절으로 인한 농업 관련 어떤 관념의 기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기원은 연대기적이거나 논리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다.<sup>4)</sup>

『세경본풀이』에는 다른 농경 문화권의 신화와 공통적인 지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주도라는 상황과 장소, 역사에 따른 특수한 문화가 드러나기도 한다. 육지 무속에서는 『세경본풀이』와 똑같은 신화는 구송되지 않는다.<sup>5)</sup> 『세경본풀이』의 농업관은 어떤 특수한 주체들의 농업관, 즉 제주

- 1) 게롤트 돔머트 구드리히 저, 안성찬 역, 『신화』, 해냄, 2001, 9쪽.
- 2) 본고에서 『세경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이본들 사이의 큰 차이는 없다. 본고에서 세부적으로 인용한 이달춘 본은 현용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 3) 이런 모순은 다른 제주도 신화에서도 나타난다. 『할망본풀이』에서는 인간 세상에 삼신이 오기 전에도 아이들이 탄생해서 자랐고, 『차사본풀이』에서는 차사가 인도하기 전에도 죽은 이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 4) William G. Doty, *Mythography: The Study of Myths and Rituals*, second edition, Tuscaloosa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1, p.58.
- 5)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몇 가지 모티프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가령 빨래하던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 버들잎이 뜬 물을 건네는 버들잎 모티프는 왕건와 이성계의 결연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남장한 여성의 정체성을 가리는 남장 모티프는 바리데기 무가와 고전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버들잎 모티프와 남장 모티프에 대한 논의와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도인의 농업관이라 할 수 있다.<sup>6)</sup> 본고는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제주도 농업관을 재조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농경문화나 농경인식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의<sup>7)</sup>에서는 이 신화 텍스트에서 명시한 몇 가지 지점들을 중시한다. 가령 자청비가 오곡종자를 가지고 왔다거나, 한 달에 한 번 거쳐야 할 생리현상을 마련했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인용되면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런 텍스트의 구체적 지점들은 “여성을 생산과 관련지어 생각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여성과 농업이 관련되는 것은, “농경에 있어서의 잉태·열매 맺음·번식능력이 자연체계 속에서 여성이 가진 속성, 곧 생산·번식·잉태 능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sup>8)</sup> 자청비가 행한 일련의 행위인 이별/재결합의 반복은 죽음과 재생의 상징적 순환으로 치환시켜 이해된다. 죽

---

의 영향 수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68~72쪽 참고. 그러나 「세경본풀이」는 몇 가지 모티프의 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모티프들의 결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개별 모티프가 아니라 그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혀 다른 텍스트, 「세경본풀이」는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는 구송되지 않는다.

- 6) 좌혜경은 자청비가 제주여인들을 닮은 이유에 대해, “향유과정에서 제주인들의 정서의 축적에서 이루어진 소산”이라거나, 제주 여성들이 “이러한 여성신들의 삶과 행동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거나 닮아가고 또한 문화전통과 역사 속에서 제주여성으로서의 인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 영웅에 대한 이미지-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0집, 한국민속학회, 1998, 192쪽.
- 7)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집, 일지사, 1982;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의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 양상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 19집, 한중인문학회, 2006;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집, 2009;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中’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8)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283쪽.

음/재생은 식물의 파종/생장이라는 현실과 은유적 유대를 갖는다.<sup>9)</sup> 『세경본풀이』의 농경 신화적 면모에 대한 연구는, 자청비가 두 번이나 남장하였다는 모티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자청비의 남장은, “남녀양성의 내재적인 결합, 양성구유의 상태를 나타내며 우주적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다.<sup>10)</sup> 이렇게 『세경본풀이』를 농업 인식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논의들은 농경신화로서 이 텍스트가 가지는 보편적 의미에 대해 해명하였지만, 제주도 신화로서 『세경본풀이』의 특징에 대해서는 별다른 초점을 두지 않았다.

『세경본풀이』와 제주도의 특수한 문화를 관련짓는 논의는 제주도 여성 생활과의 관계에서 마련되었다. 좌혜경은 자청비가 생산적이며, 시련에 도전하고, 현실대처 능력이 탁월하며, 주체적인 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자청비의 형상화에는, 물 여성과는 다른 제주도 여성의 특수한 자질들이 반영되고 있다<sup>11)</sup>는 것이다.

이상 『세경본풀이』의 기존논의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농경의식에 관한 연구는 『세경본풀이』가 생산과 풍요의 일반적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물 형상에 대한 연구는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가 제주도 여성의 특수성인 강인한 생활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고는 등장인물의 자질뿐만 아니라 『세경본풀이』의 농업관에도 제주도의 특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세경본풀이』의 농업관은 텍스트의 지엽적 내용이나 모티프를 통해 유추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전반적 구조를 통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관”이나 “가치관”처럼 “농업관” 역시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추론되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농업관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

9) 김재용, 앞의 논문, 69쪽. 김재용은 『세경본풀이』의 서사 진행을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는 계절적 순환과 등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10) 이수자, 앞의 논문, 284쪽.

11) 좌혜경, 앞의 논문, 195~197쪽.

하고 추상화해야 한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조는 부분과 전체를 관계 짓게 하며, 그 자체로 신화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sup>12)</sup> 『세경본풀이』의 농업관을 논의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세경본풀이』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3)</sup>

## 2. 『세경본풀이』의 통합적 구조-이중적 구조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합적 관계 *syntagmatic relation*와 동일한 의미들을 양산하는 계열적 관계 *paradigmatic relation*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관계는 순차적·시간적인 것으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중시한다.<sup>14)</sup> 이를 위해서 먼저 서사의 단위를 분절하는 방식과 그것들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고자 한다.

『세경본풀이』의 일련의 사건들은 시퀀스로 정리가능하다. 시퀀스는 이야기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한 서사의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시퀀스는 “탄생”이나 “결혼” 같은 다른 중요한 사건들로 귀결된다. 개별 시퀀스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서사적 상황을 “상위 서사”라고 하자.<sup>15)</sup> 이때 “상위” 혹은 “하위”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하위 서사들의 연쇄 결과 상위 서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다. 하위 서사는 더 세부적인 하위 서사 연쇄의 결과이기도 하며 상위 서사 역시 더 높은 층위의 상위 서

12) 송효섭, 『한국 설화의 세계관』,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35~36쪽.

13) 송효섭, 위의 책, 38쪽. 이런 구조는 텍스트에 객관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 상호 작용의 결과물이다.

14) 대니얼 캔들러 저, 강인규 역, 『미디어 기호학』, 소명출판, 2006, 145~149쪽.

15) 안느 에노는 서사 프로그램(PN)이란 말로 이런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서사 프로그램이란, ‘대상의 위치 배치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 인지된 집합 언술과 행위 언술을 끝과 끝에 놓는 기본 통합체이다. …작은 변형들은 하위 프로그램의 결과이며 큰 변형은 기본 프로그램의 사건이다.” 안 에노 저, 홍정표 역, 『서사, 일반 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2003, 93~94쪽.



사들을 구성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탄생으로 시작한다. 김진국 부부가 아이를 낳길 원하고 절에 불공을 드려 자청비를 얻게 된다. 이상의 서사들은 아이 낳기를 원함(옥망, 결핍)-불공(수행, 과업)-아이의 탄생(결과, 결핍의 충족)의 연쇄로 정리가능하다. 이 연쇄들은 결국 주인공 자청비의 “탄생”이라는 하위 서사를 이룬다.<sup>16)</sup>

『세경본풀이』의 시작은 자청비의 탄생이며, 끝은 자청비를 포함한 세신의 좌절이다. 탄생-좌절 사이에는 많은 시퀀스와 하위 서사들이 관여한다. 자청비는 빨래를 하다가 문도령을 보고 그와 함께 글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이는 문도령-자청비의 만남이라는 서사를 구성한다.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고,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가 아닌가 의심하지만 끝내 정체를 알지는 못한다. 자청비는 결혼을 하기 위해 가는 문도령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들은 자청비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진다. 이상의 시퀀스들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과 이별로 정리가능하다.

자청비의 탄생 → 문도령-자청비의 만남 → 문도령-자청비의 사랑과 이별

자청비와 문도령의 이별 이후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의 시퀀스들은 크게 세 가지 하위 서사로 정리가능하다.

첫 번째는 정수남과 관련되는 일련의 시퀀스들이다.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문도령을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띄고,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서 겁탈을 시도한다. 이어지는 일련의 시퀀스들은<sup>17)</sup> 결국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

16) 이 하위 서사들은 관점이나 판본에 따라서 구체화되거나 첨가되기도 한다. (중이 찾아옴-불공을 권함-김진국 부부가 불공 행함 등)

17)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이고 집에서 쫓겨난다.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피를 내어 부엉이를 잡고, 서천꽃밭 셋째 딸과 결혼하고, 환생꽃을 얻고, 정수남을 살리지만, 다시 집에서 쫓겨난다.

이고 살리는 과정으로 수렴된다. 이는 정수남의 죽음과 재생이라는 하위 서사를 이룬다. 이 하위 서사는 문도령-자청비 서사의 일부를 구성한다. 정수남이 『세경본풀이』의 마지막 시퀀스들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고, 자청비를 도와 농경신 중 한 명인 하세경으로 좌정한다는 최종 시퀀스를 고려하면 이 서사는 정수남-자청비 서사로 자리매김 된다. 정수남의 죽음과 재생은 특히 복잡한 여러 개의 시퀀스(집에서 쫓겨남-남장-서천꽃밭 방문-부엉이 잡음-가짜 혼인-환생꽃 획득)로 이루어진다. 이 시퀀스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문도령의 죽음-재생의 서사에서 반복된다.

두 번째는 베 짜는 할머니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시퀀스이다.<sup>18)</sup> 자청비에게 손가락이 찢린 문도령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는 연기된다. 세 번째는 문도령-자청비 재회의 직접적 계기가 되며 천상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시퀀스이다.<sup>19)</sup> 여기에서 문도령과 자청비는 재회에 성공한다. 이 서사들은 문도령-자청비 재회의 실패-연기-성공이라는 순차적 과정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를 위한 하위 서사가 된다.

#### 정수남의 죽음-재생 → 문도령-자청비의 재회

이 후 자청비는 칼선다리를 건너는 머느리 시험을 거치고 문도령과 혼인한다. 문도령과 자청비의 혼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다.<sup>20)</sup> 문도령은 자청비의 말을 듣지 않아 죽고,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꽃으로 문도

18)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의 혼인식에 쓸 옷을 짜면서 자신의 심정을 수로 놓는다. 문도령은 옷감에서 자청비가 쓴 글귀를 보고 자청비를 찾아온다. 자청비는 문밖에 있는 문도령의 손가락을 찢르고 문도령은 부정하다며 돌아간다. 자청비는 할머니의 집에서도 쫓겨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결국 재회에 실패한다.

19) 할머니의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다시 중이 되어 떠돌다가 문도령의 시녀를 만나 자신이 떠먹는 물을 알려 주고 함께 승천한 후 문도령을 만난다.

20) 문도령은 잔치에 초대받고, 자청비를 탐낸 청년들로 인해 죽는다. 문도령의 죽음으로 인해 자청비는 또 한 번 서천꽃밭의 꽃을 얻어와 그를 환생시킨다.

령을 살린다. 이로 인해 이들의 2차 이별과 2차 재회가 발생한다. 되살아난 문도령은 자청비와 다시 3차 이별을 한다. 문도령이 자청비 대신 서천꽃밭 셋째 딸의 사위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도령이 기일을 어기고 돌아오지 않자 자청비는 오곡씨를 얻어 지상으로 내려오고 하인 정수남과 함께 일을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문도령 역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이들은 함께 신으로 좌정한다. 이는 문도령-자청비의 서사에서 세 번째 재회이다. 그러나 판본에 따라서는 이들이 완전한 결합을 이루지 않는 것도 있다. 일부 이본에서는 자청비 홀로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한다.<sup>21)</sup> 이후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하세경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도령-자청비의 혼인 → 문도령의 죽음-재생(문도령-자청비의 2차 이별-재회) → 문도령-자청비의 3차 이별 → 문도령-자청비의 3차 재회 →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의 좌정

이상의 통합적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청비의 탄생

문도령-자청비의 만남

문도령-자청비의 1차 이별

정수남의 죽음-재생 → 자청비의 1차 서천행

문도령-자청비의 1차 재회

문도령-자청비의 혼인

21) 『조선문속 연구』에 실린 이본이나,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행수 구연본)에서 문도령은 천상에, 자청비는 지상에 분리되고 끝이 난다. 오세정은 이 판본들을 중심으로 자청비에 대해 논하면서 자청비가 유화와 마찬가지로 “남성들과 관계 맺기와 분리를 통해”, “구질서에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본다.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86쪽.

문도령의 죽음-재생 → 자청비의 2차 서천행 (문도령-자청비의 2차 이별-2차 재회)

문도령-자청비의 3차 이별

(문도령-자청비의 3차 재회)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의 좌정

통합적 구조를 보면, 문도령과 자청비의 서사가 하나의 틀로 기능하며 여기에 자청비와 정수남의 이야기가 개입한다. 문도령과 자청비의 만남-혼인에 정수남의 죽음-재생의 서사가 삽입되는 것이다. 문도령과 자청비의 세 차례에 걸친 이별-재회, 그리고 만남-혼인의 서사는 결연담을 이룬다. 이 결연담은 탄생-좌정의 중심 서사이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는 문도령과 자청비의 이별-재회의 중심 서사이다. 통합적 구조로 보았을 때 문도령과 자청비의 결연담은 삽입하는 서사로,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린 생사담은 삽입되는 서사로 기능한다. 문도령과 정수남은 자청비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 관계만을 가지며 문도령-정수남의 독자적 서사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경본풀이』의 통합적 구조는 문도령-자청비 서사와 자청비-정수남의 서사로 이루어진 이중적 구조이다.

『세경본풀이』의 한 축은 문도령-자청비의 이야기이다. 자청비-정수남의 이야기 역시 그보다는 적은 비중이지만 서사의 한 축을 이룬다. 그렇다면 『세경본풀이』의 농업관은 자청비-문도령의 관계와, 자청비-정수남의 관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청비-문도령의 관계가 함의하는 바와, 자청비-정수남의 관계가 함의하는 바에 대한 상징적 접근이 필요하다.

### 3. 『세경본풀이』의 계열적 구조-관계의 불안정성

#### 3.1. 문도령과 자청비-소통의 일방성

계열체는 서로 관련된 일련의 기표나 기의들을 의미한다.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의 관계는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이 함의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패러다임 즉, 계열적 관계로 나타난다. 이들을 계층이나 계급 혹은 공간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생각해 볼 수도 있다.<sup>22)</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통합적 구조에서 논한 것처럼 문도령-자청비, 그리고 자청비-정수남의 이원적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문도령-자청비의 관계에 적용되는 패러다임은, 자청비-정수남의 관계에 적용되는 패러다임과 다를 수 있다.

자청비는 지상적 존재이자 딸로, 문도령은 천상적 존재이자 아들로 태어난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이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지상과 천상을 오가는 공간의 이동을 감행한다. 남성과 여성을 오가는 성적 정체성의 이동을 감행하기도 한다.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러 오는 것은, 자청비가 천태산할망의 집에 있을 때가 유일하다. 그때에도 문도령은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고 나자 부정하다며 가버리고 만다. 문도령과 자청비의 결연은, 수많은 난관과 이를 극복하려는 자청비 노력의 결과<sup>23)</sup>이다. 관계를 이루거나 지속하는 데 있어 자청비는 적극적, 문도령은 소극적이다.

문도령과 자청비는 상세경과 중세경으로 좌정한다. 상세경과 중세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청비는 시아버지 문성왕에게 남편 없이 살 도리를 마련해달라고 하여 오곡 씨를 받아 지상으로 내려온다. 자청비는 밭에 씨를 고른다.<sup>24)</sup> 문도령은 자청비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곡의 씨를 받기는 하지만

22) 가령 공간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 문도령은 상, 자청비는 중, 정수남은 하에 위치할 수도 있고, 문도령은 천상에, 자청비와 정수남은 지상에 위치할 수도 있다.

23)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의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319쪽.

24) 최원오는 자청비를 곡물 획득의 주체이자 농경 및 그 관리의 주체로 보고 있다. 최원오, 앞의 논문, 378쪽. 이는 토지의 신으로서 자청비가 가지는 세부적 권한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씨앗을 뿌리거나 거두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 천제상(天祭床)을 받아먹고 살게 된다. “천제상은 천제, 기우제, 거리도제, 도천제(都天祭) 지낼 때 차리는 상”(이달춘 본)이다. 이상을 통해 상제경은 하늘의 신으로, 중제경은 땅의 신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역할 분담은 이들이 각각 하늘의 존재, 땅의 존재로 탄생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통합적 구조에서 본 것처럼 자청비-문도령 재회 혹은 결연은 지속적으로 연기된다. 문도령과 자청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파기되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문도령-자청비의 1차 이별로, 문도령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복숭아 꽃이 피면 자청비 상봉 하러 오겠습니다.”(이달춘 본)라고 약속하지만 다시 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문도령의 죽음-재생 및 자청비-문도령의 2차 이별을 야기하는 서사이다. 혼인 이후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잔치에 가서 술을 먹지 말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문도령은 절름발이가 주는 술은 괜찮을 것이라며 먹고 그 독으로 죽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청비-문도령의 3차 이별을 야기하는 서사로,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선보름은 서천꽃밭의 작은 마누라에게 가서 살고 후보름은 자신과 함께 살라고 제안 혹은 요청한다. 그러나 문도령은 작은 마누라에게 가서 삼 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 문도령이 자청비에게 한 약속이나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한 제안·요청 등은 결국 이행되지 않으며 그 결과 이들의 완전한 결합은 지연되거나 실패한다.

이들의 서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자청비 : 문도령

땅 : 하늘

여성 : 남성

적극성 : 소극성

땅 신 : 하늘신

계약의 파송자 : 계약의 파기자

이들의 대화가 제안·요청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소통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도령이 계속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이들의 결합을 지연하는 또 다른 시퀀스가 발생한다. 첫 번째 약속이 파기되면서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이게 되고, 두 번째 약속이 파기되면서 문도령 자신이 죽는다. 결국 자청비의 1차, 2차 서천행과 그로 인한 고난은 문도령이 약속을 파기한 결과 발생한 서사들이다. 문도령의 세 번째 약속 파기의 결과 자청비는 더 이상 문도령과 천상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지상으로 내온다. 계약의 파기자는 문도령이지만 그 결과를 처리하는 주체는 자청비이다. 자청비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 자질과 행동으로 인해 이들의 관계는 일반적 남녀관계보다 대등해 보인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 3.2. 정수남과 자청비-조건적 상호성

정수남이 서사에 등장하는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1차 이별을 하고 난 뒤이다. 자청비는 정수남이 더러운 데다 밥만 많이 먹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일을 시킨다. 정수남은 일하러 가서는 말 아홉 마리, 소 아홉 마리를 잡아먹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자청비를 속이고 겁간하려 한다. 정수남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더럽고, 많이 먹으며 성욕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명화되지 않은 야생<sup>25)</sup>의 특성을 가진다. 반면 자청비는 공부하고, 빨래하고, 바느질 하는 모습으로 자주 형상화된다. 그녀가 정수남을 따라 구미굴산으로 갈 때에는 정수남과 대립적 자질이 세부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때 자청비는 메밀밥을 조금 먹을 뿐이며 물을 가려가

25) 이런 특징은 소천국과 같은 제주도 일부 남성신에게도 나타난다. 모두 소를 농사의 도구로 인식하지 않는 야생과 반문명의 형태를 상징한다. 소천국의 먹성과 야생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사, 2004, 188쪽 참조.

며 마신다. 이들 사이에는 부지런함: 게으름, 깨끗함:더러움, 소식: 대식, 초식: 육식의 대립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문명과 야생의 대립으로 귀결된다.

자청비와 정수남은 각각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난다. 자청비는 정수남의 상전이며 정수남은 자청비의 하인이다. 그러나 정수남은 자청비를 속이고, 겁간하려 한다. 이들은 신분상 위계와 성별상 위계가 다르다. 정수남이 자청비를 겁간하려는 장면은, 이들의 관계가 신분으로 규정될 뿐 아니라 때로는 젠더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의사소통 양상은 문도령과 자청비의 의사소통 양상과는 다르다. 정수남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자청비를 속인다. 자청비 역시 성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수남을 속인다. 이들 사이의 속임-속음의 의사소통은 세경신이 된 후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세경신이 된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점심을 얻어오라고 명령한다. 이들의 의사소통은 명령과 복종으로 특징지워진다.

자청비의 명령은 정수남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정수남의 명령 이행 여부로 인해 판가름 나는데, 정수남은 자신의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 자청비의 명령을 이행한다. 이때 정수남의 대식성은 서사의 전반부에서부터 나오는 특징이다. 이는 자청비와의 관계가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질이다.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소를 끌어 밭을 갈게 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 밭에 씨를 고른다. 이런 역할의 분배로 인해 자청비는 농경신으로, 정수남은 목축신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협업은 농경신이 명령하고 목축신이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청비: 정수남

문명: 야생

여성: 남성

상: 하

명령의 파송자: 명령의 수행자

농경신: 목축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는 상하 복종의 관계로 안정화된다.<sup>26)</sup> 자청비와 정수남은 서로 이질적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협력하기도 한다. 신분 상 위계가 분명하게 작동할 때 이들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이들 관계 역시 불안정한 측면이 있는데 명령과 복종이 정수남의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수남의 식욕을 채워주어야 이들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적이지만 조건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관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수남이 가지는 야생의 특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어야만 한다.

#### 4.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인위성과 고단함

『세경본풀이』를 제주도 농업관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작업은, 제주도라는 사회와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를 관련짓는 작업이다. 신화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본고는 사회가 신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신화가 사회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이중적 관점을 견지한다. 즉 한편으로는 『세경본풀이』를 제주도 농업관의 모델로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 농업관을 위한

26) 『세경본풀이』가 사회상을 반영한다면, 정수남과 자청비 관계의 변화는 농경문화가 목축문화를 흡수하는 역사적 과정이 서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논의 오세정, 앞의 논문, 283쪽 참고.

모델로 보는 것이다.<sup>27)</sup>

“모델”은 사회의 이상에 부합하며, 사회의 이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모델은 그런 소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델은 사회적 이상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회적 이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모델로서의 신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화는 사회적 현상과 인식을 그 내부에 반영하고 있는 거울이다. 농경신화인 『세경본풀이』가 사회의 모델로 기능한다고 볼 때, 『세경본풀이』에는 농경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농경과 여성의 원리적 유사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애초의 여성 중심적 농업이 점차 남성 중심적 질서로 편입되는 흔적을 읽어낼 수도 있다.<sup>28)</sup>

또 다른 한편으로 신화는 사회를 위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 이때 신화를 통해 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신화는 소극적 거울의 이미지를 넘어서 실천적인 담론의 힘을 가진다. 『세경본풀이』를 통해 농경 사회의 모습이 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경본풀이』는 세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27) 기어즈에 의하면 종교는 “사회적 모델 models of society”-문화에 대한 특정 거울 이미지-과 “사회를 위한 모델 models for society”-사회가 열망하는 이상적 기준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모델-의 역할을 한다. 종교 혹은 문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서사체인 신화와 사회의 관계 역시 이 두 가지로 틀로 설명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클리포드 기어즈 저,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4장.

28) “상세경인 문도령이 곡물의 획득이나 농경 기술의 습득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여성 농경신보다 우위에 있는 농경신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곡물 및 농경 기술이 갖는 문화적 위상이 남성이나 남성신에게로 집중되고, 그래서 남성 중심사회로 권력화 되어 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9, 2006, 392쪽. 자정비가 중세경에 좌정하고 문도령이 상세경에 좌정한 데 대해서는, 남성 중심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의미」, 『이화어문논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160쪽; 강진옥, 「한국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한국민속학』 27집, 민속학회, 1995, 15~16쪽. 이상의 논의는 모두 신화가 사회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즉 신화를 사회의 모델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기타 중세경의 ‘중’의 의미에 대해 천상과 지상의 연결고리나 조화의 이념으로 보는 논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인혁, 앞의 논문, 365~368쪽 참고.

세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세경본풀이』는 단순히 제주도인의 농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소극적 텍스트가 아니다. 『세경본풀이』는 반복되어 향유되면서 제주도인의 농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sup>29)</sup> 그렇다면 『세경본풀이』를 통해 구성되는 제주도 농업관은 어떤 것 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는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세 신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 세 신들의 관계는 모두 자청비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문도령의 관계는 공간적 패러다임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천상-하늘신과 지상-땅의 신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자청비-정수남은 공간적 관점에서는 모두 지상에 위치하기에 공간적 패러다임은 이들의 상징적 의미를 차별화하지 못한다. 대신 이들은 각각 농경신과 목축신이라는 기능의 관점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위상이 정립되는 방식과 정수남과의 관계에서 위상이 정립되는 방식이 다르다. 결국 자청비는 공간적 관점에서도 의미를 부여받고 기능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이중적 위상을 가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청비가 공간의 패러다임에서는 땅에, 기능의 패러다임에서는 농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땅은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다른 어떤 장소이지만 기능 상 농사를 짓는 곳이다.

또한 『세경본풀이』에 문도령이나 정수남의 탄생 서사는 없지만 자청비의 탄생 서사는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은 자청비로 볼 수 있으며, 이 인물 형상이 제주도의 현실에서 환기하는 바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목을 요한다. 자청비가 농경신이 되는 과정은, 제주도에서 농업이 가지는 관계와 유사하다. 자청비가 농경신이 된 것은 그녀의 태생적 생산성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여성 생리의 근원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농경신으로서 자청비가 가지는 조건은 생산을 위

29)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의 농업관을 반영하는 텍스트이자, 제주도의 농업관을 구성하는 텍스트이다. 이런 점에서, 『세경본풀이』는 농업관이 말해지는 텍스트이자 동시에 농업관을 말하는 텍스트이다.

한 최소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최적의 조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청비에게는 ‘생산’이 아니라 ‘재생’의 능력이 두드러진다. 자청비가 농경신이 된 것은 그녀의 타고난 생산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후천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의 능력은 두 번의 죽음-재생 서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죽음을 삶으로 만드는 재생의 능력이다. 이는 서천꽃밭의 꽃을 얻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외부적이며 상황적이며 결국은 후천적 성격을 가진다.

땅으로서, 농업신으로서 자청비가 가지는 후천적 재생의 특징은 현실의 제주도 토양의 특징과 관련된다. 제주의 땅 자체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제주도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토로 제주도 사람들은 이 땅을 “뜨땅”이라고 부른다. 척박하여 논농사를 지을 수 없고 밭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밭농사도, 다량의 거름을 필요로 한다.<sup>30)</sup> 이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제주도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제주도 농사의 조건을 새삼스럽게 환기시키기도 한다. 제주에서 농업은 인간의 지속적 노력과 투쟁의 산물로 이해된다. 『세경본풀이』는 그 서사를 통해 제주도의 특정 농경 상황을 향유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세경본풀이』가 제주도의 농업관을 구성한다고 볼 때, 세 신들의 관계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sup>31)</sup> 자청비-문도령, 자청비-정수남의 이중적 구조를 보면, 세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세 명의 신이 농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농업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게다가 이 신들의 관계는 불안정하다. 하늘과 땅의 관계가 불안정한 것은 소통의 일방성 때문이며, 목축과 농경의 관계가 불안정한 것은 조건적 상호성 때문이다. 결국 이 세 명의

30) 김정숙, 『자청비, 가문장아기, 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각, 2002, 29~30쪽.

31) 이들이 세경신이 된 역사적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텍스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청비가 중세경이 된 것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는 별개로, 외부적 이데올로기가 개입한 우연한 결과일 뿐이다.

신들로 인해 제주도의 농업은 복합적이며 까다로운 협업으로 인식된다.

문도령으로 상징되는 하늘과, 자청비로 상징되는 땅의 관계는 제주도 농업문화의 구체적 지점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특정 농경 현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관계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합을 이루기도하고 결합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이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들은, 특히 문도령은 하늘과 땅을 오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가진 점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들 관계의 불안정성은 문도령의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해 야기된다. 문도령과 자청비는 하늘신과 땅 신으로 대분(大分)되기에 그 위상에 있어서는 대등하다. 그러나 이들의 소통은 일방적이며 불안정하다.

농업문화에서 하늘은 환경과 기후를 관장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문도령이 기우제(祈雨祭) 상을 받는다는 것<sup>32)</sup>은 그가 가지는 이러한 상징적 역할을 제의적 차원에서 설명해준다. 제주도의 날씨의 고온다습하며, 농부들은 작물보다 더욱 빨리 성장하는 잡초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제주도 농사는 기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기후는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되는 때가 많다. 제주의 자연 환경은 다양한 재해를 불러오기도 한다.<sup>33)</sup> 결과적으로 농부들(주로 여성들)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아야 하고, 자연재해와 싸워야 한다. 인간의 무한한 노력과 신의 방치 혹은 방해로 특징지어지는 제주도 농업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일방적 소통이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 땅에 대한 하늘의 소원함, 인간에 대한 신의 방기는 제주도 농업의 바꿀 수 없는 조건, 결코 유리하지 못한 조건을 인식시키고 특화한다. 이렇게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와 문도령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제주도 농업에 대한 인식은, 농업의 어려움과 곤경에 대한

32) 문도령은 천제상을 받는다. “천제상은 천제, 기우제, 거리도제, 도천제(都天祭) 지낼 때 차리는 상”(이달춘본)이다.

33) 김정숙, 앞의 책, 30쪽.

인식으로 귀결된다.

이 점은 자청비-정수남의 관계가 제주도의 현실에서 환기하는 바에서도 확인된다. 텍스트에 드러나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상호관계는, 제주도 농업의 특수성 그리고 농업과 목축의 관계를 유사한 패턴으로 읽어내게 한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는 상호적이기는 하지만 “문명”과 “야생”의 이질성에 기반한다. 농업은 목축과 달리 “문명”에 가깝다. 땅을 보존하고 일구는 기술이 중요하다. 목축은 농업에 비해 “자연”의 상태 그대로의 땅을 이용한다. 제주도에서 농업은 목축과 긴밀한 협업 관계에 있다. 제주의 뜰땅은 파종 후 밟아주어야 하는데 이때 마소의 힘이 필요하다. 마소는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sup>34)</sup> 제주도 농업에서는 목축을 담당하는 미천하지만 힘센 남자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농업은 문명의 단계이지만 제주도에서 농업은 자연 혹은 야생의 특징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에서는 축산 제의가 중요하며, 농업 제의에 축산 제의의 성격이 가미되기도 한다. 제주도 농업 제의 가운데에는 “마불림제”가 있다. 제주도 중간산 지역 마을의 본향당(本鄕堂)에서 7월에 하는 무속제의이다. 대부분 7월 백중 무렵에 하는데, 마(곰팡이)를 날려 보내는 제의라는 의미가 있고, 또 농사와 축산의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무속적 제사로서 특히 우마(牛馬)의 번성(繁盛)을 위해 축산신(畜産神)인 ‘정수남’에게 올리는 제의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축산신을 기리는 이런 제의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힘들다. 또한 제주의 백중은 다른 지역의 백중과 달리, 목동의 혼을 위로하고 농사와 축산의 풍등과 번성을 비는 무속제사로 이루어진다. 간혹 축산신인 정수남이에게 제를 올리며 마소의 번성을 비는 당굿을 하기도 한다.<sup>35)</sup>

이를 통해 제주도에서 목축이 농업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34)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사, 2011, 84쪽.

35) 제주도의 백중에 대해서는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집, 275쪽 참조.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목축은 농업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농업보다 목축에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땅은 말을 기르고자하는 외세에게도, 진상할 말을 기르고자 하는 관리들에게도 천혜의 환경을 제공하였다.<sup>36)</sup> 섬이라는 협소하고 고정된 공간에서 목지의 확대는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과 농업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주에서 목축과 농업이 조화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 목축신의 대식성으로 대표되는 비문명성 혹은 야만성이 충족되면서도 그것이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아야 한다. 조건적 상호성은 바로 이런 까다로운 상황이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 농업신은 자신의 권위 하에 목축신을 두어야 한다. 이때 목축신의 야생적 탐욕은 불편한 요소이지만 불가피한 요소로 잠재되어 있다.

『세경본풀이』는 제주도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담론이기도 하다. 기질적 척박함, 기후조건의 방해, 목축의 번성 가능성 등 현실적 의미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세경본풀이』에서 신들의 분리와 신들 관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하늘의 일방성과 목축의 전복의 가능성 등 신들 관계의 불안정성은 제주도에서 농사에 대한 문제적 상황을 환기시킨다. 이 상황에서는 일방성을 상호성으로, 전복가능성을 복속가능성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하늘과 땅, 목축과 농업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들려는 인간의 노력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두 가지 조화를 위해 똑같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노력에 대한 생각 역시 텍스트에서는 위계적으로 나타난다. 문도령-자청비의 서사가 『세경본풀이』의 전체 틀이 되며, 정수남-자청비의 서사가 거기에 삽입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관계가 농업의 기본적 틀이 되며, 거기에 목축과 농업의 관계가 도입된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이, 목축과 농업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어려움보다 근본적이다. 제주도에서 목축과 농

36) 이형상은 제주의 풍토가 말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면서, 숙종 때 제주목에는 34곳의 자목장(字牧場)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규 역, 『남환박물-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2009, 143쪽.

업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보다, 하늘과 땅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을 벗어난 영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세경본풀이』를 통해 구성되는, 제주도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에는 농업 환경의 “인위성(人爲性)” 혹은 “작위성(作爲性)”과 그로 인한 농사의 “고단함”이 관여한다.

## 5. 결론

지금까지 『세경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자청비가 가진 일반 농업신적 면모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에는 자청비 외 두 명의 신이 더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지엽적 사실이나 모티프보다는 구조에 초점을 두면서, 개별 사건을 전체 속에 위치시키는 통합적 구조와, 인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는 계열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명의 신들이 만들어내는 이중적 구조와, 각각의 관계가 함의하는 불안정성에 주목하였으며, 그러한 관계들이 제주도의 농업 현실에서 어떤 의미들을 환기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탄생한 신들이다. 본고는 이들을 통해 제주도의 농업에 관한 어떤 진실을 읽어내려 하였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화가 “진실”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 “진실”은 특정한 문화와 환경 내의 의미작용/의미/가치를 표현한다. 물론 신화의 지엽적 진실은 일반화될 수도 있다. 지엽적 진실을 넘어서 인간 문화 전체에 관한 의미작용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실은 필연적으로 확실하지도 않으며, 그 스토리가 어떤 신화적인 과거로 돌아가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세경본풀이』가 농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 기원이 이전 혹은 최초의 설명으로서 의미는 아니다. 『세경본풀이』에서 설명되는 농업의 기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혹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



기도 하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농업의 기원이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 혹은 미래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농업에 관한, 현재에도 유의미한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환경의 인위성 혹은 작위성, 그로 인한 인간의 고단함이라는 인식은 농사를 하나의 딜레마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경본풀이』는 어떻게 농사(관)가 시작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농사의 딜레마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막연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시사할 수 있다.<sup>37)</sup> 문제는 답을 함축한다. 『세경본풀이』에서 농사의 딜레마를 신들 관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 역시나 이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데 있다.

나아가 본고는 『세경본풀이』 외 다른 제주도 무속신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제주도라는 특수한 상황을 하나의 맥락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차사본풀이』에는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바다와 가까이 살며,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제주도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는 삶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친근함이라는 특수한 의미를 양산할 수 있다. 또한 『문전본풀이』에는 처와 첩 등 인간관계의 유비로 구성되는 집에 대한 인식 혹은 집에 대한 유비로 구성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 특수한 남성의 역할과 그로 야기된 불편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기도 한다. 제주도 무속신화가 어떻게 또는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7) 신화가 사물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종류의 패러독스와 딜레마와 모순들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프라이리히Freilich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Doty, *ibid.*, p.116.

## 참고문헌

### 기초자료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단행본

- 김정숙, 『자청비, 가문장아기, 백주또-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각, 2002, 29~30쪽.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사, 2004, 188쪽.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규 역, 『남환박물-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2009, 143쪽.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35~38쪽.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사, 2011, 84쪽.  
대니얼 챌들러 저, 강인규 역, 『미디어 기호학』, 소명출판, 2006, 145~149쪽.  
롤트 돔머무트 구드리히 저, 안성찬 역, 『신화』, 해냄, 2001, 9쪽.  
안 예노 저, 홍정표 역, 『서사, 일반 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2003, 93~94쪽.  
클리포드 기어츠 저,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4장.  
Doty, William G., *Mythography: The Study of Myths and Rituals*, second edition, Tuscaloosa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1, p. 58; 116.  
  
논문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의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307~345쪽.

- 강진옥, 『한국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한국민속학』 27집, 민속학회, 1995, 5~45쪽.
-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53~76쪽.
-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집, 2009, 53~74쪽.
-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집, 일지사, 1982.
-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59~290쪽.
-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의미』, 『이화어문논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147~172쪽.
-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집, 한국민속학회, 1993, 267~300쪽.
-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中’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343~373쪽.
-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0집, 한국민속학회, 1998, 181~199쪽.
-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9집, 2006, 363~394쪽.

## Abstract

### The Segyengbonpuri and Jeju Island -The Essey on the Specificity of a Myth

Ryu, Jeongwol

This paper studies Segyengbonpuri, one of the myths of Jeju island and focuses on the view of agriculture. The text which represents the origin of three gods who are in charge of farm is performed only in Jeju island. The studies about this text dealt with the general aspects of the main character, Jacheongbi, but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and special aspects of three gods. For this purpose, I use a structuralist approach to investigate the elements of texts. I applied a syntagmatic relation to study individual sequences, which found that the narratives of Jengsunam's death and second birth are inserted into the narratives of Mundoryeong and Jacheongbi's meeting and marriage. So I called this "a double structure". I applied a paradigmatic relation to study symbolic meanings of the characters, which found that their relationship are all instable. Mundoryeong fails to keep his promise with Jacheongbi and their relation is characterized by one-sidedness. Jeongsunam has a tendency to gulosity and savage. Jacheongbi tries to feed him. They can cooperate only on condition that Jengsunam must be subjected to Jachengbi.

Furthermore this paper explains how the instability operate with the context of agriculture in Jesu island: The soil is poor, which is related to the fact that Jachengbi has no child. Climatic condition

frustrates the farmers, which is related to Mundoryung's irresponsibility. And the stock-farming has a decided advantage, which is related to Jengsuman's dangerous power. This study infers meaning on the view of agriculture: The farming in Jeju island artificially prolong the life: The farmers are exhausted by the work in Jeju island. This awareness is reinforced by the text, Segyengbonpuri.

Key words : Segyengbonpuri, Specificity, the myths of Jeju island, syntagmatic relation, paradigmatic relation, double structure, instability, the view of agriculture, artificiality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